

한국인에게 '맛의 고장'을 꼽으라 한다면 십중팔구는 '전라도'라고 답할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풍부하고 음식 자체도 다양하거나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남도만의 독특한 맛이 전라도를 '미향'이라 일컫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과연 '맛의 고장'은 전라도'라고 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전주는 10여 년 전 한식·한지·한옥을 산업의 범주에 집어넣고 이를 지역 브랜드화하는데 성공했다. 전주의 '한(韓) 브랜드' 마케팅은 국내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렸다. 한식의 경우 누구나 익히 아는 '전주비빔밥'의 해외 판매점을 확충했고 표준모델마저 개발해 지적재산권 등록까지 마쳤다. 한지 분야는 대학·연구기관·관광사·관련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지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지양말은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한지수위는 마치 필수 장례용품인 양 인식되고 있다. 한옥 브랜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차별화는 관광객 유치 승부처**

전주시는 그들의 브랜드를 '한바탕 전주'라 표기해 홍보한다. 캐릭터는 태극선과 합죽선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풀이가 있지만 캐릭터만 보면 한지부채가 전주의

**전 매 광 장**

이용현

광주관광컨벤션부대표



**광주의 브랜드 '문화도시' 어떤가**

고유 캐릭터라고 생각할 터이다.

'여수' 하면 '이순신과 거북선' '여수 사건' '해양엑스포'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 여수는 낭만포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상케이블카를 탄 뒤 국민가요처럼 돼버린 '여수 밤바다'를 흥얼거리는 그림으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에게 낭만과 사랑의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수를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여수 밤바다'를 통해 여수라는 도시를 알았다고 한다. 노래를 듣고 여수의 낭만을 만끽하려 찾아갔다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지역을 대표하는 히트곡 하나가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대구를 보자. 대구는 도시 브랜드를 '컬러풀 대구' (Colorful Daegu)로 잡고 색과 관련된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는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이 가운데 미식과 관련해서는 레드(red), 즉 매운맛을 강조하며 대구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매운돼지갈비찜과 양념곱창구이를 꼽아 홍보하고 있다. 물론 이 음식들은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매운돼지, 양념곱창은 있었지만 레드를 내세운 대구에서야말로 이들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유일한 색깔 드러낼 수 있어야**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게 된다. 대구가 레드를 내세워 다른 지역에도 있는 매운돼지, 양념곱창을 특화 시키듯이 도

시를 빛나게 할 차별화된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것이야말로 관광객 유치의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광주는 그런 점에서 적잖이 아쉽다. '광주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누군가는 한정식을 꼽을 테고 또 누군가는 오리탕, 육전을 꼽을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한정식·오리탕·주먹밥·상추튀김·육전·무등산보리밥·송정떡갈비 등 7가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뽕으면 다른 메뉴가 아쉬워 7개를 선정했겠지만 광주 가면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한다고 외치 방문객에게 내세우기엔 웬지 버겁다.

해외여행사에서 우리 광주를 경주나 전주, 심지어 진주도 알고 연락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명 끝이 죄다 '주'가 들어가서인지, 발음하기가 비슷해서인지는 모르겠다.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을 무릅쓰고 새로운 관광지 광주에 대해 소개해주겠다며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그 와중에도 추천할 먹거리가 7가지가 된다고 하면 지루한 내색을 보이기 일쑤다.

광주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지역에 널려있는 많은 콘텐트를 하나로 묶어보면 어떨까. 프린지페스티벌, 5·18민주화운동, 비엔날레 등을 하나의 콘텐트로 묶어 '문화도시 광주'로 브랜드화한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문화예술의 향기를 광주에 와야만 느낄 수 있게끔 한다면, 이로써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됐으면 한다.

**사 설**

**돈 빼앗고 물고문까지 자행하다니**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의 잔인한 만행이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동갑내기 친구를 오랜 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빼앗고 물고문까지 자행했다니 이들의 잔인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소름이 돋는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던 친구 B군을 오랫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 등 4명은 폭행은 물론 돈을 빼앗고 물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숨진 B군이 주자장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75만원을 빼앗아 유혹비로 탕진했으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한 뒤 가져오지 않으면 가차 없이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을 조롱하는 가사를 만들어 랩으로 부르는 행동도 서슴지 않

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 B군의 얼굴에 들이대고, 세면대에 B군의 얼굴을 담그는 등 물고문까지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잔혹행위는 이들이 찍어 두었던 사진과 동영상에서 경찰이 확인한 것이다. 숨진 B군은 그사이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군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다발성 손상인 점, 폭행 피해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가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의 산병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혹사라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아울러 왜곡된 10대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는 물론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내우외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묘안 찾아라**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 공무원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일부 사업부지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백지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만 배 불리는 비리와 특혜로 물든 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일부 건설사에 특혜 가능성이 다분하고, 장기간 개발 제한에 묶였던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대위는 사업 부지 존속과 광주시의 계획 추진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돼 지난 달 7일 검찰 수사도 진행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대비에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특례사업 공원 9개 중 5곳은 아직 타당성 검토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딱 막힌 현안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매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민원 제기 사항은 후속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물론 지역 개발사업의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반목이 쌓이며 특혜 등 갖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수영대회 '북한 참가' 역랑 결집해야**

**기지수첩**

전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평화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수영대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선수 등록 마감 결과 국제수영연맹(FINA) 회원국 209개국 193개국 193명의 임원·선수·미디어관계자 등 총 7,266명이 등록했고 참가선수만 2,995명에 달한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일단 대회 성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회 흥행요소인 북한이 참가등록을 하지 않아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3일 FINA와 함께 북한 참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시와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제수영연맹(FINA)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참가의 기회가 남아있다. 광주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2일 특별기자 회견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만큼 체육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임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FINA가 개최한



황에란  
정기부 차장

대회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다. 내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 출전권의 43%가 광주대회에 배정될 것도 북측 참가를 유인할 요소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북한을 비롯해 엔트리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 수영연맹들을 대상으로 FINA와 함께 7월 3일까지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북한 참가에 대해 조직위와 국제수영연맹이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FINA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비와 방송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가 북한 선수단 참가를 요청한 것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2번째다. 4년 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식에서 끝까지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자리를 비워둔 채 남북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조직위·중앙정부·FINA·대한수영연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에 세 이**



김한호  
문학박사·수필가

꿈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더욱이 학창시절에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더구나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5월 17일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에서는 "2019 타임캡슐 개봉식"이 있었다. 이 행사는 전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하는 행사로 전남 교육감과 경남 교육국장을 비롯하여 내외빈 및 그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전남 46명, 경남 1명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 5월 26일에 영호남이 화합하여 새로운 전년을 맞이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전남 559교와 경남 513교 초등학교 학생회장 1천72명이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를 손수 작성하여 타임캡슐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그 당시 전남교육연수원에 근무했던 나는, 그날 '꿈 너머 꿈'이란 축사를 했다. 지금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지만 그 당시 교육연구사였던 20년 전과 오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년 전에 이 행사에 참가했던 어린이들 또한 이제는 30대 청년으로 그동안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꿈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바뀌거나,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남 초등학교 6학년생 559명의 꿈을 분석해보니, 교사 59명, 과학자 56명, 법조인 55명, 축구선수 45명, 의사 40명, 연예인 33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29명, 교수 27명, 의상 디자이너 23명, 경찰 19명, 대통령 9명, 기타 164명이었다. 초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아이 부모의 권유나 자신의 막연한 꿈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한 47명이 각자

**타임캡슐에 묻힌 꿈**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20년 전의 꿈이 실현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어린 나이여서 부모의 권유나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던 것이다. 대부분이 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임캡슐에 묻혀버리고 만 셈이다.

이들이 태어난 1987년은 전두환 군사 독재에 항거하여 '6월 민주항쟁'이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88서울올림픽'이 열렸다. 그리고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99년에는 '21세기 밀레니엄'을 향한 열망으로 들떠 있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년 후인 2019년에는 '헬조선'에 사는 'N포 세대'가 돼버렸다. 이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에서, 내 집 마련·인간관계도 포기한 '5포', 그리고 꿈·희망마저도 포기한 'N포 세대'들로 흩수저 탓만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대학진학률이 75%가 넘는데, 대졸생의 취업률은 3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공시생들이 넘쳐나고, 취업을 하지 못한 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고 취업을 꺼리면서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일자리만 찾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진로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잘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적성과 능력보다는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요즘은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율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의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꿈을 이뤄 성공한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꿈 너머 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 지 광 장**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피서객들 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하기 위하여 119구급대가 고정 배치 될 예정이다.

피서뿐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된다. 그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법 숙지하자**

러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방심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물놀이의 사고 발생 가능 장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안전관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집중근무 강화를 한다.

또한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사고예방 지도에 앞장서게 된다.

구급대의 역할뿐 아니라 휴가지에서는 취사를 하거나, 담배꽂초로 인해서 화재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 항상 휴가지에 놀러 갔을 시 소화

기 및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들은 휴가 중에 주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문제 발생 시 고민하지 않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소방공무원은 밤낮없이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다가올 휴가를 대비하여 미리 예방법을 숙지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영양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 추종순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金善勇**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p>경치부 (062) 720-1060-62</p> <p>경계부 (062) 720-1066-67</p> <p>사회부 (062) 720-1050-54</p> <p>사회2부 (062) 720-1043-45</p> <p>동부권본부 (061) 743-4200-01</p> <p>서부권본부 (061) 285-9816-17</p> <p>문화체육부 (062) 720-1071-72</p> <p>사전부 (062) 720-1040</p>	<p>편집부 (062) 720-1070</p> <p>기획실 (062) 720-1005</p> <p>논설실 (062) 720-1032</p> <p>월간국 (062) 720-1006-07</p> <p>관리국 (062) 720-1012</p> <p>판매국 (062) 720-1098</p> <p>사업국 (062) 720-1011</p> <p>광고국 (062) 720-1016-17</p>	<p><b>기시제보</b></p> <p>•TEL (062) 720-1050-54</p> <p>•FAX (062) 720-1080-82</p> <p>•E-mail jndn@chol.com</p> <p><b>광고문의</b></p> <p>•TEL (062) 720-1016-17</p> <p>•FAX (062) 720-1020</p> <p>•E-mail jnm1100@hanmail.net</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p>
---	---	---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주: 2019년 6월 20일